

할머니는 요리 솜씨가 좋았다. 하지만 내겐 음식이
맛난 건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먹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의사며 약사며
내과, 우리 큰 큰들이 식사하는 걸
볼 수 있는 건 정말 귀한 일이다.

내편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내 편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내 편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내 편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내 편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내 편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내 편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내 편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내 편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내 편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자주 시내에 나갔다. 내
손을 붙잡고 고깃집, 채소 가게 등을
돌아다니면서 내게 무슨 반찬을 먹고 싶으냐고 지껄이
며 물어봤다. 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고개만 좌우로

머리를 흔들었다.
“이런데, 왜 그래?” 할머니는 나를 보며 물었다.
“아니, 그냥 그래.” 할머니는 나를 보며 물었다.

할머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할머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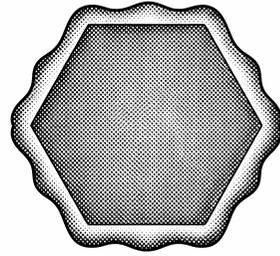
할머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할머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있는 내 몸은 은은한 빛이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나더러 운동장에서 쓰러졌던
애라며 수군대는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신경이 쓰인
것은 아침까지도 별말이 없던 할머니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할지
이제부터 밥을 잘 먹겠다고 맹세라도 해야 할지
궁리했다. 주눅거리며 집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이미 나갈 채비를 마치고 있었다. 아침에 생글하던
표정은 온데간데없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내 손을
붙잡고 시내로 향했다.
어느 그릇 가게 앞에 이르러서야 할머니와 나의
발걸음이 멈췄다. 가게 안에는 반짝이는 사기와 옷그릇,
제기 같은 것들이 즐지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작은
나무 상 하나를 골랐다. 나뭇결이 곱고 반지르르하게
윤이 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를 앞세워 진열장을
가리키고는 마음에 드는 그릇을 골라 보라고 했다. 나는
이것저것 들었다 내려놓고 만지작거리다가, 개고락지가
그려진 사기그릇 하나를 집었다. 가장자리에 보라색
포도알이 둘러진 것이었다. 내가 고른 밥공기를 받아
든 할머니는 밥을 잘 먹어야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했다. 또 툭툭하게 자라서 늙은 할머니를 돌봐줘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서글펐다. 할머니의 주름이 유난히 더 깊어
보이는 것도 같았다. 나는 할머니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었다. 복사하고 코팅까지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새 밥공기와 과자부스럭기를
가지고 소꿉놀이를 했다. 부엌에서는 지글지글 기름
볶는 냄새가 났다.



소반

고구말랭이

발행일 2026년 3월 5일
글쓴이 고구말랭이



작은배가 진행하는
<일상묘사 : 수필 합형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댓글로 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글은 jagunbae.com에서 확인하세요.

